

KOICA는 아시아재단과 몽골에 '여성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해
여성들이 당당하게 기업가,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업주부였던 우누자가씨는 센터의 지원을 받아 몽골 미용 재료인
양기름을 사용한 비누 및 미용제품을 판매하는 청년 기업가로 성장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ICA INSIDE 개도국 사업 현장 앵글에 담은 김명중 사진작가
KOICA VIEW 여성도 당당한 나라를 위하여
OVERSEAS KOICA 에티오피아 구라게존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

2018. Spring
Vol. 8
World's Friend KOICA
Newsletter

지구촌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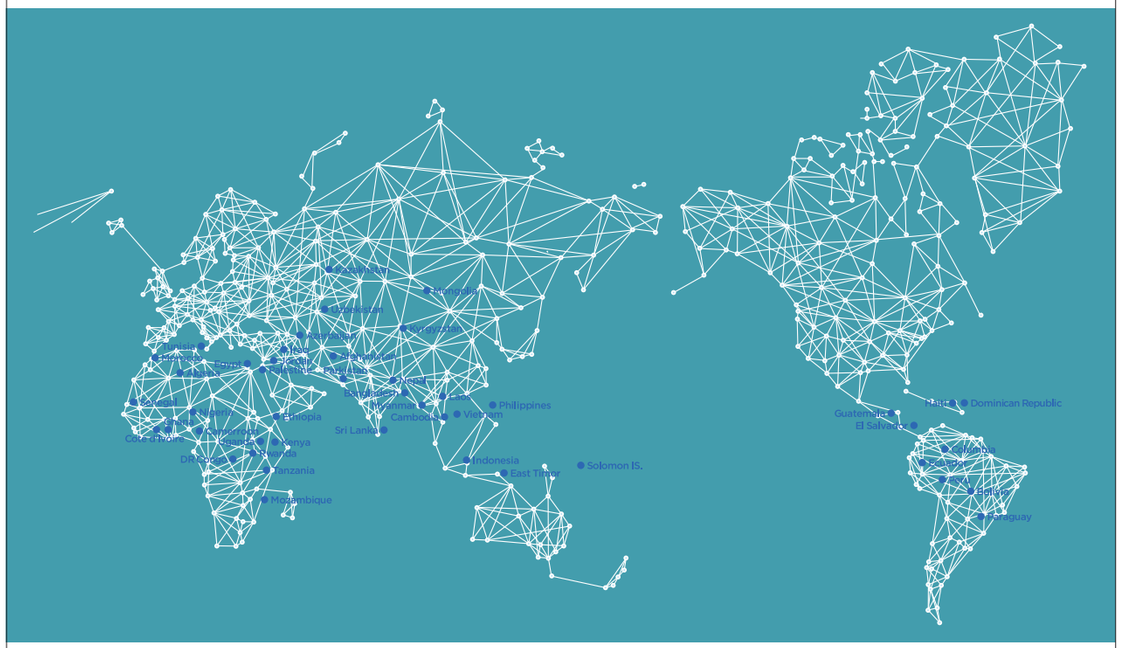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NK ODA, WITH KOICA
WWW.KOICA.GO.KR

ABOUT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대외무상 원조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ODA 사업을 실시하고자 1991년 4월 외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KOICA를 설립하였습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OICA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국제기구협력 등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OICA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NGO, 기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ICA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환경, 인구, 질병, 인권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양성과 우리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TENTS

2018. Spring / Vol. 8

KOICA INSIDE
코이카 人사이드

04
KOICA 사업현장 앵글에 담아 전시회 연 김명중 사진작가
"개도국 현장에서 확인한 KOICA 손길에 안도감 느껴"

10
지난 2월 졸업한 KOICA 연수생 티리 몬 & 제임스 아모아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 고국에도 적용할 겁니다"

14
필리핀에 희망 '씨앗' 심는 귀국 연수생 동창회
"연수 경험과 지식, 필리핀 지역사회에 좋은 씨앗 될 것"

17
스리랑카 연장근무 신청한 권정민 봉사단원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쁨,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어"



KOICA VIEW
코이카 뷰

20
몽골 여성 기업가 양성 및 경제활동 참여 강화 사업
여성도 당당한 나라를 위하여

23
여성비즈니스센터 졸업생 우누자가씨와 노민-엘데네씨
"용기 내서 시작하세요, 180도 다른 삶이 생깁니다"

OVERSEAS KOICA
세계 속 코이카

26
에티오피아 구라게존 지역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
3800개의 현대적 화장실을 만들다

30
구라게존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깨끗한 화장실로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32
KOICA,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21세기 형사 콜롬보들을 만든다

WHAT'S ODA
ODA 알아보기

34
핀테크 기업 '웹케시'의 '캄보디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미래의 캄보디아 IT전사를 키운다

36
교육 스타트업 '에누마'의 개도국 아동교육 앱 '킷킷스쿨'
탄자니아 아이들 앱으로 공부한다?

38
한국 청년 스타트업 '엔젤스윙'의 '드론 데이터 플랫폼 사업'
네팔 청년에게 '꿈의 지도' 선물하다





World's Friend
KOICA

발행인 이미경 **등록일자** 1994년 12월 5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18-02-115
발행일 2018년 4월 6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462-833)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KOICA 홍보실 **제작**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조광프린팅

KOICA 뉴스레터 〈지구촌가족〉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은 대한민국의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KOICA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명중 사진작가의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8년 1월호 'KOICA VIEW'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801/content1_3.php?code=201801_010103


©MJ KIM


©MJ KIM

코이카 사업현장 앵글에 담아 전시회 연 김명중 사진작가

"개도국 현장에서 확인한 코이카 손길 촬영 마치고 안도감과 감사함 느껴"

지난 10년간 폴 매카트니, 조니 뎁 등 유명 셀러브리티 사진작가로 사랑을 받아온 MJ KIM(김명중). 이번에는 스타가 아닌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사업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KOICA 사진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길 밖의 세상으로 가다'라는 제목으로 2017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의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되어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았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뉴욕, 런던 등의 화려한 도심이 아닌 개발도상국 오지에서 그가 본 '길 밖의 세상'은 어떤 곳이었을까? KOICA 사업현장의 생생함과 감동을 포착해온 김명중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_오랫동안 유명 셀러브리티 사진작가로 활동하다가 이번에는 좀 색다른 분야의 사진에 도전했다. KOICA 사진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나?

"처음 영국에서 사진을 배울 때는 전쟁, 기아, 난민의 상황을 생생히 담은 사진들을 보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다. 동시대에 다른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지구 반대편 현실에 대한 충격과, 동시에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쩌다 보니 커리어는 셀러브리티 전담 사진작가 쪽으로 쌓아왔지만,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열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KOICA 사업현장을 담는 사진촬영을 기쁘게 진행할 수 있었다."

Q_페루,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등에서 KOICA 사업현장을 촬영하면서 실제로 어떤 점을 느꼈나?

"사실 처음부터 KOICA 사업을 많이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 교육, 문화, 의료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아마존 원주민들을 위한 태양광 발전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업을 지구와 사람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

Q_특히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촬영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의 짐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항상 개발도상국 오지를 촬영하고 돌아올 때면, 나는 이제 편안한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들은 계속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안도감과 감사함이 컸다."

글 임아영(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김명중(사진작가)









Q_왜 그렇게 느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다.

"스리랑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당시 차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을 만났다. 이분들은 스리랑카인이 아니라 영국 식민지시대에 차 재배를 위해 노예로 끌려온 인도 타미르족 후손이었다. 문제는 이분들이 '스리랑카에 사는 인도인'이어서 인도와 스리랑카 양 정부로부터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20㎏의 찻잎을 가득 따도 5달러 이하의 돈을 벌면서 열악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KOICA가 UN-Habitat(유엔인간정주계획), 인도와 협력하여 이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주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곳을 떠나면서 '아, 지금 내가 낸 세금의 일부가 KOICA를 통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구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보다는 매우 뿌듯하고 놀라웠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Q_개발도상국에서 촬영한 대부분의 다큐멘터리 사진은 삶의 어려움과 무게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작가의 사진에는 그런 면보다는 즐거움·행복함과 희망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다. 이번 사진 촬영에서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두었나?

"삶의 어려움은 금전적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 그곳에 가서 느낀 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었다.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맨날 어렵고 힘든 건 아니다. 이들에게도 소소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여태까지 많은 사람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만 부각하는 사진을 찍어왔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에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 사람들은 못살고 힘들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해'가 아니라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것을 도와주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Q_어떤 면에서 작가의 사진 속에서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올리는 느낌도 받았다. 꼭 내 이야기처럼 정감이 간다.

"그럴 것 같다.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가 페루 사업 현장에서 만난 작은 소녀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아이는 나의 어릴 적 모습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현재 모습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동떨어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다. 결국 그게 나의 이야기와 부합이 되기에 사진이 모두에게 더 다가오지 않나 싶다."

Q_KOICA와 KOICA 사업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KOICA는 국민이 낸 세금의 일부로 개발도상국에서 활발하게 원조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 미국과 독일 등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만큼 지금은 그것을 돌려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KOICA가 하는 사업은 '상생'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나만 잘사는 게 아니라 당신도 같이 잘살자, 그래서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자.' 이런 일을 하는 곳이 KOICA라고 생각한다."

Q_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에서 듣는 세금에 관한 소식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많았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게도 쓰여진다. 그래서 조금 고단하고 피곤하더라도, 힘내시고 또 열심히 살면서 우리보다 더 고단하고 힘든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2018년이 되길 바란다."



카메라에 KOICA 사업현장을 담고 돌아온 김명중 사진작가.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8.SPRING

KOICA 국내 초청 연수생 티리 몬&제임스 아모아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선진기술 고국의 조직에도 적용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개발도상국을 최초로 지원한 사업은 무엇이었을까. 정부가 196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해외 연수생 초청사업이 우리나라가 실시한 최초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도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석사학위 연수생 초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 그 주인공들이 있다. 미얀마에서 온 티리 몬(Thiri Mon)씨와 가나에서 온 제임스 아모아(James Amoah)씨는 지난 2월 KOICA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봄을 맞이했다.



01

Q_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달라.

티리 몬(이하 T) · 제임스 아모아(이하 J):

"우리가 참여한 'KAIST 개도국 금융핵심인력 양성과정'*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아메리카 등 14개국에서 총 19명이 참여했다. 교육과정은 경제, 통계, 회계, 회사재정, 투자 등의 커리큘럼을 포함하여 파이낸스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학습을 위해 구성됐다. 수업은 교내강좌, 사례분석, 자료수집, 개인 및 그룹 PT 등으로 진행됐으며 그 밖에도 스포츠나 기업탐방, 문화 지역탐방 등의 별도 활동도 진행됐다. 이는 한국의 국가개혁과 경제성장, 정치 이슈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배울 좋은 기회였다."

* KOICA 연수생 초청 사업이나 KAIST가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프로그램 운영 담당.
* **석사학위 연수사업:**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국내 소재 대학을 통해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약 2500여명 이상의 석사를 배출하였다.

Q_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T: "미얀마는 개발도상국으로 특히 금융 및 재무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KAIST에서 교육하는 과목 대부분은 금융공무원인 내게 필요했다. 수준 높은 회계 시스템과 기술을 열심히 배운 뒤 미얀마에 돌아가서 적용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했다."

J: "어렸을 때부터 회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경영논문을 읽기 시작했고 대학교 땐 회계를 전공했다. 공부하면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재무 관리에 근거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금융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다."


02

01
KAIST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02
김제 지평선 축제에 참여한 티리 몬(Thiri Mon) 연수생.

"한국의 모든 것이 좋았다. 그들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훌륭한 인프라를 경외한다. 한국인이 가진 사고방식이나 따뜻한 '정' 문화에도 감명을 받았다.

내게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준 KOICA와 KAIST에 정말 감사하다. 한국이 그리울 것 같다."

–미얀마에서 온 티리 몬

Q_18개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T: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정말 인상 깊었다. 한국의 교수님들은 우리에게 바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고할지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 사고를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실행할지를 알려준다. 이 방식이 마음에 든다. 미얀마의 교육 시스템은 이해보다는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미얀마에도 적용하고 싶다."

글 송승환(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티리 몬, 제임스 아모아(KOICA 석사학위 연수생)



01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공부 여건이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공부에
집중만 하면 됐다.

또한 교수진과의 접근이 쉬웠다.
나는 교수에게 메일을 쓸 수도 있었고,
지정된 시간에 매주 방문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은 가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나에서 온 제임스 아모아

J: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모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누릴 수 있는 공부 여건이었다. 여기에는 개인 공부 공간, 연구실, 기숙사, 책, 온라인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프로그램은 따라가기 벅찼지만,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제공받았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공부에 집중만 하면 됐다. 또한 교수진과의 접근이 쉬웠다. 나는 교수에게 메일을 쓸 수도 있었고 지정된 시간에 매주 방문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은 가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Q_18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T: "나는 결혼을 했고, 태어난 지 3년 6개월 된 딸이 있다. 현재는 어머니와 남편이 돌보고 있다.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간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특히 두 살배기 아이가 정말 보고 싶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터넷이 잘 터져서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밤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다. 한국의 발전된 인터넷 환경에 감사함을 느꼈다."

J: "프로그램의 강도와 학업의 압박은 내가 평생 겪어 보지 못한 정도였다. 나는 미래를 위해 지금 하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기 때문에, 목표를 상기하며 정말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다."

Q_여행은 자주 했는가?

T: "내게 여행은 스트레스를 푸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공부시간과 휴식시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버스보다 지하철을 타는 것을 선호했다. 한국의 지하철은 시간이 매우 정확하고 교통체증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1박2일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다녀온 김제 지평선축제를 꼽고 싶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 시골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을 즐겼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는 한국 농부의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민요를 부르면서 쌀을 수확하는 행사였다. 그 행사 내내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02



03

J: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가 본 곳은 매우 많다. 수원, 대전, 춘천, 강촌, 포항, 울산 등을 방문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울산에 있는 현대조선 부지였다."

Q_배운 내용을 귀국 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J: "가나로 돌아가면 이전에 속해 있던 조직으로 다시 복귀할 생각이다. 돌아가서는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선진기술들을 적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내가 속해 있던 금융부서의 직장 동료들과 배운 지식·기술들을 공유하고 싶다. 금융 정책과 행정 절차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나는 공인 재무분석사(CFA) 시험을 준비 중이다. 수강했던 CFA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시험과 아주 유사하므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Q_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

T: "한국의 모든 것이 좋았다. 그들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훌륭한 인프라를 경외한다. 한국인이 가진 사고방식이나 따뜻한 '정' 문화에도 감명을 받았다. 내게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준 KOICA와 KAIST에 정말 감사하다. 한국이 그리울 것 같다."

J: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이고, 개발이 한 세대 안에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든 개발도상국의 모델국가이다. 또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올바른 리더십이 있을 때 한 국가는 잿더미에서 선진화된 사회로 올라갈 수 있었다. 한국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대단(simply amazing)하다."

01
KAIST 경영대학 학업우수상을 수상한 제임스 아모아(James Amoah) 연수생(오른쪽에서 세 번째).
02
KAIST 메인 캠퍼스를 방문한 KOICA 석사학위 연수생들.
03
티리 몬(Thiri Mon) 연수생이 김장을 하고 있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8.SPRING



필리핀에 희망 '씨앗' 심는 귀국 연수생 동창회

"한국에서 쌓은 연수 경험과 지식 필리핀 지역사회에 좋은 씨앗 될 것"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의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씨앗(CIAT)'*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한다. 연수생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연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씨앗'을 싹 틔운다. 약 2800명의 회원을 가진 필리핀 귀국 연수생 동창회(Philippine KOICA Fellows Association · 이하 PHILKOFA)의 전 회장 주디 베르무도(Judy A. Vermudo)의 이야기를 통해 연수생들이 자국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본다.

* CIAT(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 KOICA에서 실시하는 글로벌 연수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정책 입안자,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을 국내에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 100여개국의 인사들을 초청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25년간 총 174개국 6만 4906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글 이원경(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KOICA 필리핀 사무소

Q_지난 11월 부산에서 열린 'KOICA 귀국 연수생 동창회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들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동창회장들을 만날 기회가 흔치 않은데, 회의에 참석한 소감이 궁금하다.

"먼저 KOICA가 연수생 동창회를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점이 좋았다. 매년 이 회의를 통해 KOICA와 귀국 연수생의 연대를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 동창회 간의 유대를 끈끈하게 만들 수 있다. 동창회마다의 고유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창회장 모임은 연수생들을 대표해 각국 동창회를 한자리에 모아 서로의 발전을 돕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_필리핀 귀국 연수생 동창회 'PHILKOFA(필코파)'에 대해 소개해 달라.

"2001년에 시작된 PHILKOFA는 올해로 18주년을 맞이한다. 우리는 연수생들이 필리핀으로 돌아와 연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게 돕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정기적인 지식확산 세미나 개최, 현지 대학, NGO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현지 고유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활동 중에는 팜팡가(Pampanga) 지역 산 페드로(San Pedro) 초등학교에 식수 펌프를 기증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01 02
필리핀 현지에서 열린 연례총회와 임원총회.
03
장애인 복지 지식확산 세미나에 참석한 주디 베르무도 필리핀 귀국 연수생 동창회 전 회장.

Q_약 2500명의 회원을 가진 PHILKOFA는 규모가 비교적 크고 활동적이다. 전 동창회장으로서 동창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창립 기념 행사나 연례총회, 총동창회, 봉사활동, 친선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행사들은 회원들에게 동료애와 소속감을 길러줄 수 있다. 더불어 모든 회원들이 동창회가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공유받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페이스북,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동창회의 활동 계획과 소식들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Q_PHILKOFA가 필리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하다.

"먼저 생필품 기부나 의료봉사와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PHILKOFA와 KOICA를 알리고, 지식 확산 세미나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누에바 에시하(Nueva Ecija)에서 이루어진 의약품, 문구류 기부와 '고부가가치 작물 수확 후 관리 방안과 농업 기계화 역량 강화' 지식 공유가 대표적이다.







01

01
주디 베르무도 전 회장(가운데 초록색 옷을 입은 여성)과 PHILKOFA 회원들.
02
누에바 에시하(Nueva Ecija) 지역 초등학교 봉사활동.

개인적으로는 PHILKOFA를 통해 불우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개인적인 업무로 바쁜 와중에 PHILKOFA를 통해 필리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뿌듯하다."

Q_PHILKOFA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생긴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외딴 지역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료애가 생겼다. 1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동창회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과 만들어간 유대관계와 우정은 나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현재 나와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두 'PHILKOFAan(필코파인)'이다."

Q_마지막으로, PHILKOFA와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먼저 필리핀 사람 누구나 'PHILKOFA'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어떤 단체인지 바로 알 만큼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또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다. 우리의 연수 경험을 적극 공유하면서 현지 대학,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KOICA와 PHILKOFA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KOICA도 PHILKOFA가 필리핀 현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길 희망한다."



02



2017년 10월 26일 스리랑카에 대한민국 해군 순항함이 왔을 때 학생들과 함께 입항식 환영행사에 참여한 모습(왼쪽에서 네 번째 권정민 단원).

스리랑카 연장근무 신청한 권정민 봉사단원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쁨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어"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의 해외봉사단원들은 2년간 봉사활동을 하며 때때로 세수는커녕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바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기가 있다. 여기,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국립도서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2년간 담당한 것으로 모자라 6개월 연장 신청을 한 권정민 봉사단원이 있다. 그녀가 전해온 글의 행간마다 ODA가 품고 있는 '생기'가 묻어난다.

글 한종수(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권정민(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원)



01



02

Q_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KOICA 봉사단원에 지원한 계기를 말해 달라.

"내 좌우명은 '재밌게 살자'다. 항상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어 방송작가라는 직업을 택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다. 다른 일에 도전해 보기 위해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게 됐다. 이후 우연히 KOICA 귀국단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당장 봉사단원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물론 한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시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지원했다."

Q_한국어 수업을 전담한다고 들었다. 수업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가?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노소 학생 총 100여명이 콜롬보 국립도서관의 한국어 교실을 찾는다. 입문·초급·중급반으로 나누어 2시간씩 진행하며, 최근 EPS-TOPIK* 대비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수업은 주중(화·목) 4시간, 토요일에는 6시간 동안 진행된다. 학생 대부분이 대학생 혹은 직장인이라 주말 수업이 더 붐빈다.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교재를 통해 회화 위주로 교육하는데, 유튜브(YouTube)를 이용해 한국의 드라마나 예능 같은 TV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어와 더불어 다른 봉사단원을 초빙해 한식 만들기, 전통문화 체험, 태권도 수업, 한국 노래 교실, 한국 무용 수업 등을 가르친다.

*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시험.

Q_한국어 교육이 현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어 교육은 한국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KOICA의 ODA 지원이 계속되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하긴 하나, 현재 약 30여명의 KOICA 단원들이 전국 직업전문학교(Technical college)와 초·중·고등학교(College)에 배치되어 스리랑카 지방 학생들에게 EPS-TOPIK 수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스리랑카 학생들의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 셈이다."

* 2017년 통계청 국내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국적 조사 결과, 스리랑카 국적자는 전체 8.7%(2만 2000여명)로, 베트남(14.5%), 캄보디아(13.2%), 인도네시아(11.4%), 네팔(10.6%), 필리핀(9.7%), 태국(9.2%)에 이어 7번째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Q_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최근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말하기대회와 연극대회 두 종목에서 모두 1등을 했다. 현지 대학 한국어학과나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 출신을 제치고 우승을 거둬 더 감동적이었다. 특히 이번 말하기대회에서 우승한 만줄라는 작년 가을에 한글 자모음부터 배우기 시작한 마흔 살의 주부다. 늘 열심히 하고 발음도 좋아서 놀랐지만, 쟁쟁한 참가자들을 제치고 1등을 할 줄은 몰랐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한글도 모르는 열 살 된 아들이 말하기 대본을 똑같이 외우고 있었다. 또한 작년 8월에 한국외대 국제관계학 석사과정 장학생이 된 아말리라는 친구도 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 둘의 경우에는 한국에 공부하러 가고 싶다거나,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어 제일 뿌듯하다."

Q_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고 들었다. 현지 봉사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당연히 '사람'이다. 현재 홈셰어 하고 있는 현지인 가족, EPS-TOPIK반 학생들, 한국어 발표에 나갔던 만줄라까지. 말은 통하지 않아도 늘 챙겨주려고 하고 심지어는 봉사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탄원서를 작성하기까지 하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해 주저 없이 연장을 선택했다."

01
한국-스리랑카 40주년 기념 주간(2017년 11월 13~20일) 중 한국에서 온 난타 공연을 보고 난 후 학생들과 함께(왼쪽에서 네 번째 권정민 단원).

02
2017년 10월 26일 스리랑카에 대한민국 해군 순항함이 왔을 때 선상에서 비빔밥을 먹으며(왼쪽에서 네 번째 권정민 단원).

03
2017년 11월 18일 콜롬보에서 열린 한국어말하기대회에서 수상한 제자들과 함께 권정민 단원(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4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권정민 단원.

Q_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학생들을 만나면 힘이 나고 또 수업을 하고 나면 즐겁다는 것을 매일 느낀다.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고 또 감사하다.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 사상 등 모든 부분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방송작가보다는 아예 한국어 교사로서 역량을 채워 가는 데 집중할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다."

Q_KOICA 봉사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KOICA 해외봉사단원들은 귀국 후 또다시 도전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국외휴가제도*같이 KOICA 해외봉사단원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꿈이 많은 이, 혹은 반대로 삶에 지친 이도 좋다. 타인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내가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이가 많으면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이 깊어서 좋고, 나이가 어리면 젊다는 그 이유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 **국외휴가제도:** 1년 이상 활동한 해외봉사단원의 경우 복무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3주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휴가가 가능함. 이때 제반 경비는 본인 부담이며, 국외 휴가 승인을 받지 않고 국외로 출국할 경우 국내 소환 사유가 됨.



03



04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함께 여성비즈니스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모습.

KOICA의 몽골 여성 기업가 양성 및 경제활동 참여 강화 사업

여성도 당당한 나라를 위하여

3월 8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로 매년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녀차별 철폐, 여성 빈곤 해결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몽골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 인구의 절반인 여성, 그들이 처한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글·사진 김현정(KOICA 몽골사무소 영프로페셔널)

몽골 여성 기업가 양성 및 경제활동 참여 강화 사업에 관한 내용은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8년 3월호 'KOICA VIEW'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803/content1_2.php?code=201803_010102

국제노동기구(ILO)의 '여성 기업 및 경영(Women in Business and Management)' 보고서(2016)에 따르면 몽골 여성 소상공인의 비율은 34.9%에 불과하며 대부분 소규모 가내수공업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몽골 여성 기업가들은 금융권 대출 한계로 인해 자금 조달이 제한적이며, 창업이나 기업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도 접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창업에 뛰어든 여성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 창업자에게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결국 성별 격차를 만들어 몽골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KOICA와 아시아재단, 울란바토르시에 여성비즈니스센터 조성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은 몽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6년 몽골 최초로 '여성비즈니스센터(Woman Business Center·WBC)'를 설립했다. 센터는 장애인·싱글맘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몽골 여성들이 당당하게 기업가·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는 여성 기업가와 창업자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해 경제성장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는 개발과제인 2020 어젠다(Agenda 2020)에 '여성 일자리 확대 정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KOICA와 아시아재단은 이러한 몽골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여성 기업가와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여성비즈니스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관별 비교우위를 고려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PPP)을 구축했다. 시민사회, 기업, 금융권, 정부 등 다양한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여성비즈니스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비즈니스센터 추진 현황



여성비즈니스센터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개소 이후 19개월 만에 2000명 등록… 취약계층도 참여

센터는 개소 이후 19개월 만에 약 2000명이 등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참가자의 16%는 저소득층, 장애인, 미혼모 등 취약계층이다. 센터는 취약계층을 고려해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용 편의시설, 싱글맘 아이들의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 금융자문, 금융지원을 포함한 창업 관련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창업교육 프로그램 150건, 금융자문 지원 프로그램 149건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여성비즈니스센터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8.SPRING


01



02


03


04

골롬트(Golomt)은행을 통해 약 40명의 여성 창업자가 8% 저리 대출로 소액융자를 지원받기도 했다. 총 금융 지원액은 1억 3500만투그릭(약 6760만원)에 달한다.

여성 창업가 331명이 2000여만원의 소득 창출

KOICA와 아시아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득 증대'와 '창업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첫째, 여성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42%가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했고, 25개의 신규 사업을 등록했다. 센터 교육생들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도 46회 이상 열려 여성 창업가 331명이 약 4523만 1500투그릭(약 2270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 **팝업스토어** : 일종의 '개방형 장터'로 여성 수혜자들의 수제품 및 상품을 여러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 및 네트워킹 환경을 제공함.

둘째, 센터 교육생 출신 여성 창업가들은 박람회나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이들은 '아시아 문' 박람회,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 '반셈베루(Vansemberuu)' 박람회에서 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했으며, 몽골 TV5 채널 '애프터워크(After Work)'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KOICA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 이후에도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여성과 취약계층 창업 기회를 촉진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또한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개발, 경제성장을 통해 '여성도 당당한 나라' 몽골이 되길 기대해 본다.

01
샹그릴라호텔(Shangrila Hotel)에서 열린 팝업숍에 참가한 여성 수혜자들이 자신이 만든 수제 공예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02
팝업숍에 자신이 제작한 의류를 전시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 수혜자 오윤-운드라흐(Oyun-Undrakh)씨.

03
MCS Plaza(KOICA 등 원조기관 입주 건물)에서 열린 팝업숍에 참가한 여성 수혜자들이 자신이 만든 상품들을 홍보하고 있다.

04
반셈베루(Vansemberuu) 박람회에서 '우수 청년 기업가(Excellent Young Enterpriser)'상을 수상하고 있는 우누자가(가운데)씨.


여성비즈니스센터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참가자들.

여성비즈니스센터 졸업생 우누자가씨와 노민-엘데네씨
"용기 내서 시작하세요. 180도 다른 삶이 생깁니다"

여성비즈니스센터(WBC)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처음 자신만의 사업을 창업하고 이전과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몽골 여성 수혜자들. 이제는 어엿한 여성 창업자로서, 육아나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인해 아직 사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응원하고 있다.

여성비즈니스센터는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 취약계층을 선정해 약 4개월간 비즈니스 심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Business Incubating Program · 이하 BI)'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4번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졸업자는 1기부터 4기까지 총 32명이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졸업자의 42%가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러한 성과는 비단 센터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성 참가자의 열정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생한 경험담을 듣기 위해 BI 프로그램 3기 졸업생인 우누자가(Unurjargal)씨와 노민-엘데네(Nomin-Erdene)씨를 만나봤다.

글 · 사진 김현정(KOICA 몽골사무소 영프로페셔널)



우누자가씨와 Suulkhen의 제품들.

"내가 만든 비누를 남편이 못 믿겠다고 사용을 거부했는데 BI 프로그램을 수료하면서 내가 만든 비누가 예쁜 상품으로 변하니까 남편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우수 청년 기업가상 수상한 우누자가씨

우누자가씨는 뷰티 스타트업 기업 'Suulkhen'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7년 9월부터 BI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배운 노하우를 통해 제품 생산라인을 다양화했고, 몽골의 전통 미용 재료인 양기름을 사용한 보디로션, 보디오일, 비누 및 입욕제 등을 생산 판매하며 다수의 단골 고객층을 확보했다. 그 결과 Vansemberuu 2017 박람회에서 우수 청년 기업가상을 수상했다.



노민-엘데네씨와 Necta 유기농 꿀 제품.

"갈 길은 멀지만, 좋은 시작은 성공의 반이니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나 자신이다.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철저히 지원해준 여성비즈니스센터에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몽골 브랜드상 수상한 노민-엘데네씨

노민-엘데네씨는 2015년 창업에 도전했지만 결국 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를 맞아 큰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BI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새로운 로고를 제작하고 특허권을 취득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현재 'Necta' 유기농 꿀은 울란바토르시 내 다수의 식료품점과 상점에 공급되고 있으며 수출의 판로 확보를 위한 제품 품질검사도 받았다. 또한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에서 브랜드상을 수상한 바 있다.

Q_여성비즈니스센터 개소 전부터 여성 창업자로서 신생 기업을 운영했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

우누자가: "2017년 1월, 출산 후 집에 있으면서 유기농 비누를 만들었지만, 상품화해 시장에 출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타깃 고객에 대한 이해, 포장, 제품명 등 상품화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 셈이었다. 비즈니스에 대한 막연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다."

노민-엘데네: "2015년에 친구 2명과 동업으로 과자를 만드는 사업을 했다. 그 당시 사업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사업 재원 조달 미비, 상품화에 대한 역량 부족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급기야 부도가 났다."

Q_BI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누자가: "친척 언니의 친구가 BI 프로그램 1기 졸업자다. 친척 언니를 통해 여성비즈니스센터를 알게 되어 2016년 5월 말에 처음 방문했다."

노민-엘데네: "Women for Change NGO 주관 주말 연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강사가 여성비즈니스센터의 몽골 파트너 단체인 Development Solutions(현지 파트너 단체) 소속이었고, 센터를 소개해줬다."

Q_실제 BI 프로그램 중 어떤 활동이 가장 유용했나?

우누자가: "'사업아이디어 계획'을 주제로 한 3일 연수가 가장 유용했다. BI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이 연수를 통해 머릿속에서만 맴돌았던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됐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노민-엘데네: "모든 프로그램이 유용했다. 예를 들자면 BI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나 제품을 상품화하는 각 단계별 트레이닝을 받았다. 이후 상품이 완성되면서 여성비즈니스센터의 지원으로 전시회에 참석하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었다. 연수나 행사가 연동돼 각 프로그램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고 채워주어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Q_BI 프로그램 참여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누자가: "사실 남편은 처음에 내가 만든 비누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사용하기를 거부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는 아주 서러운 일이었다. 창업자로서 만든 제품이 최초의 소비자로부터 거부당하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심정이었다. 그런데 BI 프로그램을 수료하면서 내가 만든 비누가 예쁜 상품으로 변하니까 남편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BI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대학교 학생 못지않은 경영 지식을 얻게 되었다."

노민-엘데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 진출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물론 갈 길은 턱없이 멀지만 좋은 시작은 성공의 반이니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나 자신이다.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철저히 지원해준 여성비즈니스센터에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Q_박람회에서 수상했다고 들었는데, 여성비즈니스센터가 어떤 도움이 됐나?

우누자가: "2017년 9월, 여성비즈니스센터의 추천을 받아 반셈베루(Vansemberuu) 2017 박람회에 참석해 '우수 청년 기업가(Excellent Young Enterpriser)'상을 받았다.* 여성비즈니스센터의 도움이 없었다면, 수상은커녕 나의 사업 아이디어조차도 상품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 참석한 57개 업체 중 6개 업체 · 기업가가 수상했고 그중 4개가 BI 수혜자들이다.

노민-엘데네: "몽골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17년 5월 중소기업 박람회에 여성비즈니스센터의 지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몽골 브랜드(World Competitive Mongolia Brand)상'을 수상했다. 그 이후 2017년 9월에 내몽골 수도에서 열린 후흐호트 박람회 등 국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여성비즈니스센터가 추천하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Q_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하다

우누자가: "현재 몽골 비누 시장의 96%는 수입품이다. 몽골 제품이 단 4%밖에 안 된다. 현지 시장의 최소 50%를 나의 제품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이다. 몽골의 민주주의 체제 전환 이후 최초의 비누공장을 개소해서 몽골 비누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 WBC가 나에게 절호의 기회를 준 것처럼 몽골의 취약층을 대상으로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싶다."

* 몽골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9개의 유기농 비누공장을 운영 중이었으나 체제 붕괴로 폐쇄됨.

노민-엘데네: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시나몬, 생강 꿀차 및 견과류 꿀 등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스페셜 기프트 세트도 개발 중이다. 앞으로의 목표는 해외시장 진출이다."

Q_여전히 몽골에서 여러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예비 여성 창업자에게 조언 한마디.

우누자가: "몽골의 많은 여성들이 육아나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박스 안에 갇혀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 실제 BI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의 나와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집에서만 제조하고 주변 사람들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여성이 많다. 이런 여성들에게 시야를 넓히고 용기를 내어 날개를 펴보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당신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하고 싶다."

노민-엘데네: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 용기를 내서 시작하면 어떻게든 기회가 생긴다고 말해주고 싶다. 몽골 여성비즈니스센터는 몽골 여성 창업자를 육성하고 국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아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오래, 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


01

에티오피아 구라게존 지역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
3800개의 현대적 화장실을 만들다

비위생적인 배변시설로 인한 식수원 오염으로 연간 7만 3700명의 에티오피아 아동이 사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24개 마을에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지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에 나섰다.

배설물이 식수원 오염…
5세 이하 어린이 연 7만여명 사망

깊이가 1m도 채 되지 않는 얕고 조그만 구덩이. 에티오피아 남부국가민족주(SNNPR · 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 구라게존*의 화장실 모습이다. 구라게존에서는 이처럼 화장실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해 노상배변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화장실이 있다 해도 정화시설이 없는 재래식 화장실이 대다수였다.

* **구라게존(Gurage zone)** :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로부터 남쪽으로 약 215㎞ 떨어진 지역.

비위생적인 배변환경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구라게존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2~3㎞ 떨어진 강물이나 용출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배설물로 식수가 오염돼 설사,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야기했다. 설사로 인한 연간 에티오피아의 아동사망자는 7만 3700명에 달하고 있어 식수위생환경의 개선이 시급했다.

* **수인성 전염병** : 세균에 오염된 물을 사용해 발생하는 소화기계 질환

주민 7만 3000명에게 안전한 식수 제공

2013년, KOICA 에티오피아사무소는 SNNPR주 구라게존을 대상으로 화장실 신축 및 위생인식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일명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사업. 해당 사업을 통해 2018년 3월 3800개의 깨끗한 화장실이 생겼고 7만 3000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게 됐다. 더불어 주민들이 식수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왔다. 주민들의 인식개선이라는 지속가능한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비결은 CLTS라는 사업 진행 방식에 있다.

* 에티오피아 SNNPR주 구라게존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2013~2018 · 840만달러)


02



03

01
에티오피아 구라게존 마을 아이들.
02
사업 시작 전 구라게존 마을의 화장실 모습.
03
구라게존 식수위생사업 1차 종료식(2017년 2월).

글 황서현(KOICA 홍보실 인턴기자) · 사진 KOICA 에티오피아 사무소

KOICA, 화장실 관리에 주민들 참여시켜 효율성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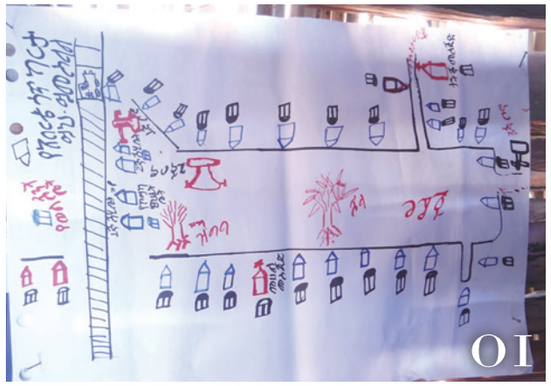
KOICA WaSH 사업팀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주도형 화장실 개선사업(CLTS· Community Led Total Sanitation)' 방식을 선택했다. CLTS는 사회개발분야 전문가 카말 카(Kamal Kar) 박사가 2000년 방글라데시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처음 고안한 방법으로, 주민들 스스로 위생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직접 행동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WaSH 사업팀은 CLTS 방식을 활용하여 단순히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행동변화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CLTS 방식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었던 핵심비결은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동기부여다. 사업팀은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상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이 용변을 보는 장소를 표시하는 화장실 지도(Sanitation Map)를 그려 노상배변이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동시에 도처에 분포돼 있는 오물이 주민들이 마시는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식수위생 개념 교육(Glass of Water exercise)을 시행했다.

효과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KOICA는 사업이 진행되는 24개 마을마다 1~2명씩, 총 36명의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 'WaSH 프로모터(Promoters)'도 선발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마을 내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화장실을 만들 수 있게 도우며 KOICA WaSH 사업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SDGs 6번 목표인 '깨끗한 물과 위생'의 실현

KOICA WaSH 팀에서는 CLTS 방식의 위생환경 개선이 5세 미만 아동 설사율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수집해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개선사업을 진행한 실험군(24개 마을)과 진행하지 않은 대조군(24개 마을) 모두 총 5회(2016년 1월~2017년 2월)에 걸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더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 각 가정별로 달력을 배포하고 교육을 시행해, 아동들의 설사 여부를 꼼꼼히 기록하게 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된 실험군의 5세 미만 아동 설사율은 12.4%가 감소했고(대조군의 경우 7% 감소), 성인 설사율 역시 8.4%(대조군의 경우 6% 감소)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성과 연구 논문은 2016년 4월 보건분야 국제 학술지인 'Trial'에 게재되어 연구 목적과 방법론의 타당성 또한 증명받았다.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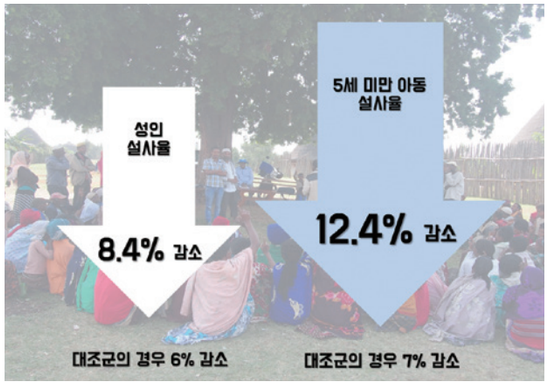

03


04

01
화장실 지도 그리기 모습과 완성된 지도.
02
마을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는 'WaSH Promoters'.
03
달력에 설사여부를 표시하는 모습.
04
완성된 화장실의 모습.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위생설비에의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없앤다.'

이는 UN SDGs의 6번 목표 '깨끗한 물과 위생'의 세부 목표 중 하나이다. 위생적인 화장실과 안전한 식수와 관련된 보건 의제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KOICA 에티오피아사무소는 'SNNPR 구라게존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의 성과에 기반해 2019년부터 식수위생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구라게존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깨끗한 화장실이 주는 변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에티오피아 다가그(Degag) 마을에 사는 자원봉사자 아레보 하센(Arebo Hassen)씨는 자신이 사는 마을의 변화를 이끈 WaSH(화장실 신축 및 위생인식 개선사업) 프로모터(Promoter)*다. 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실 환경 개선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깨끗한 화장실 건설을 도운 그는 이 사업의 든든한 조력자다. 그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만든 화장실을 돌아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WaSH Promoter : 주민들의 화장실 환경 개선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선발된 자원봉사단. 24개 마을에서 각 마을별로 1~2명을 선발. 2018년 2월 기준, 36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01

에티오피아 구라게존(Gurage Zone)에는 4년 동안 3800개에 달하는 화장실이 새로 지어졌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의 '화장실 신축 및 위생인식 개선사업(WaSH · Water, Sanitation and Hygiene)'의 일환이다. 에티오피아 구라게존 주민들은 비위생적인 배변시설로 인한 식수원 오염으로 수인성 질병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설사로 인한 연간 에티오피아 아동사망자는 7만 3700여명에 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WaSH 사업은 주민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벽과 지붕이 생긴 화장실…
재래식이지만 변기도 갖춰

WaSH 프로모터인 하센씨는 새로 지어진 화장실 앞에서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허술한 천가림막뿐이었던 화장실에는 견고한 벽과 지붕이 생겼다. 단단한 나무들을 엮어 만든 벽과 잠금장치가 달린 문. 성인이 들어가도 충분히 높은 지붕은 마을 사람들의 배변 환경과 사생활을 지켜주고 있었다.
하센씨를 따라 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3m가 넘는 깊은 구멍과 덮개는 오물이 넘치거나 오염된 물이 그대로 식수로 흘러들어 가는 문제를 해결했다. 화장실의 또 다른 변화는 변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나무와 진흙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발판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아는 재래식 변기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온전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들과 지역 주민들의 노동력이 더해진 화장실은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준다.

주민들도 깨끗한 화장실의 중요성 인식

WaSH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보건공무원인 타쇼메(Tashome)씨는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사실 에티오피아에서 WaSH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화장실 위생환경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시작된 후 주민들은 깨끗한 화장실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점점 더 깨끗한 환경과 좋은 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지어졌다. 그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화장실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타쇼메씨도 화장실 위생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 사람이 된 것이다. 주민들 역시 반응이 좋다. 이 사업에 참여한 사디크 케말(Sadik Kemal)씨는 4m의 구덩이를 파고, 벽과 지붕을 세우는 모든 작업을 자비로 직접 했다. 그녀가 화장실을 짓는 데 든 비용은 약 400버르(약 2만원). 화장실 건축에 필요한 양철판과 못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비용이 전부다. 기술은 WaSH 프로모터와 지역 공무원으로부터 전수받았다. 물론 혼자하기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깨끗한 화장실이 가져다줄 변화를 알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장실 짓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02


03

01
주민들이 직접 지은 화장실을 소개하는 하센씨(오른쪽 두 번째).
02
사업 전 들판에 노출된 화장실(위)과 이후 개선된 화장실 변기(아래)의 모습.
03
에티오피아 지역 보건공무원 타쇼메씨.

글 이원경(KOICA 홍보실 인턴기자) · 사진 KOICA 에티오피아 사무소



KOICA,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21세기 형사 콜롬보들을 만든다

스리랑카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종 지능형 범죄와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수사 시스템과 역량은 체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으로 스리랑카에 첨단 과학수사 시대를 열고 있다.



01
스리랑카 정보분석국 유전자 분석과 직원들.

우리에게 실론티로 잘 알려진 스리랑카는 2009년까지 36년 동안 내전을 겪은 나라이다. 내전이 종식된 이후 2010~2012년 사이 평균 8%가 넘는 경제 성장을 일궈내며 중 · 고소득 국가로 도약을 꿈꾸는 우리의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중 특히 지능형 범죄와 사이버 범죄 증가에 곤란을 겪고 있다.

스리랑카 정보분석국 110년 역사에도 초기 수준의 과학수사 능력

스리랑카의 범죄 증거물 분석을 담당하는 정보분석국(Government Analyst's Department · GAD)은 110년 전통을 갖춘 정부기관이지만 신기술을 활용한 분석 기법 도입, 디지털 증거물 분석 역량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현대의 주요 범죄 증거물인 스마트폰, 컴퓨터, CCTV, 블랙박스 등에 대한 증거물 분석을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없어 경찰과 개인은 사설기관과 대학 연구소를 통해서만 분석을 의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범죄해결 비율 또한 연간 40~46%로 매우 저조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다양한 공여기관과 정보분석국을 선진화하여 정부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3년 USAID 지원을 통해 최초의 DNA(유전자) 분석랩을 설립했으나 여전히 접수되는 상당수의 분석 건수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디지털 증거물 분석 시설 부재, 혈흔으로 편중된 DNA 분석 역량, 분석 표준 절차 부재 등의 제약으로 2014년 연간 유전자 분석 건수가 73건에 그쳤다.

KOICA, 국과수와 협력해 스리랑카 수사 방식 현대화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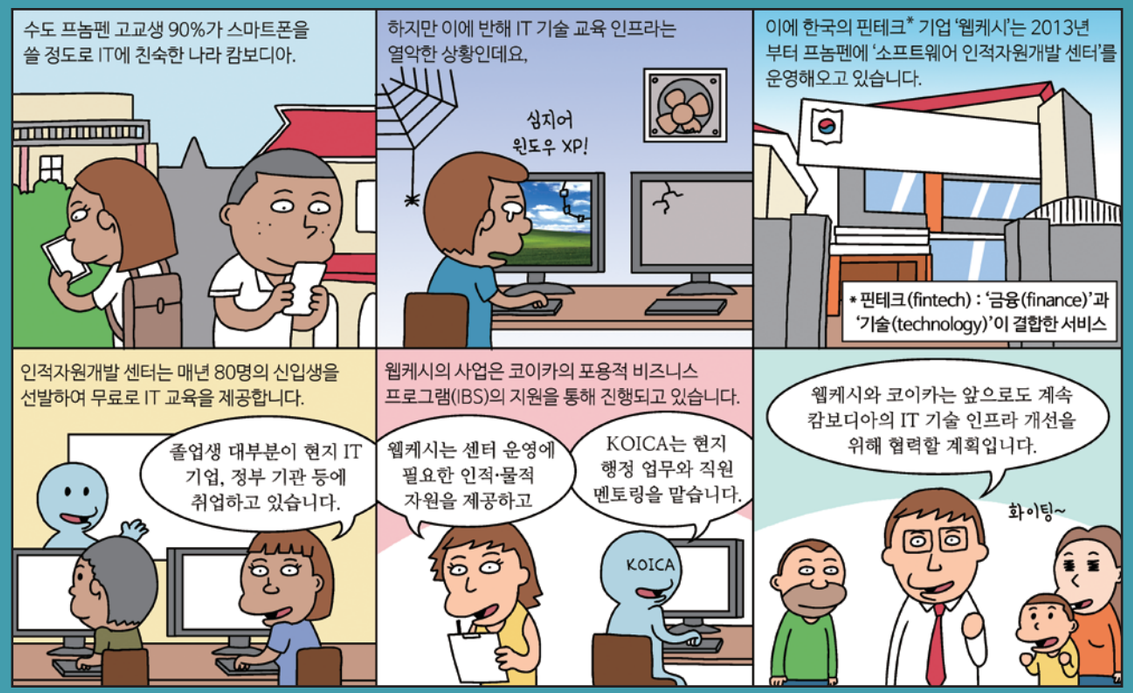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KOICA 스리랑카사무소는 유전자 분야 역량 보완 및 디지털 분석랩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은 KOIC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최신 기자재 지원 및 랩 설립뿐 아니라 현지 위탁교육, 국내 초청연수는 물론 국과수 전문 분석관들의 도제식 분석 노하우 전수를 위한 6개월 이상의 현지연수를 실시하여 GAD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증거법상 GAD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는 관련 법적근거 마련과 GAD 인력 강화와 조직 확대를 위한 장기 발전안을 제공하여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였다.

*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 휴대폰이나 PC 같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범죄 관련 정보 데이터를 수집 · 분석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공하는 것.

2017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스리랑카 GAD는 전문인력을 갖춘 과학수사 기관으로서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 사업 추진 3년 동안 유전자 분야 연간 분석량이 620% 증가하였고, 기존 분석 역량이 부족했던 모발 및 유골 DNA 분석 또한 80건 이상 진행됐다. 디지털 분야 또한 2017년 초 첫 분석 시작 이후 매월 약 60건의 감정 요청이 들어오고있다. 2016년 11월에는 국제적 수준의 분석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인증을 획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역량을 갖춘 범죄 수사 지원 기관으로서 스리랑카 내 인식을 공고히 했다. 이 사업은 스리랑카 정부의 수사 및 재판의 신속성, 정확성 향상을 통해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내전 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종자 수색(6만 5000명 이상)에도 직접적으로 활용되어 스리랑카 사회갈등 치유 및 화해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사진 이지수(KOICA 스리랑카사무소 부소장)

||| 핀테크 기업 웹케시의 '캄보디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미래의 캄보디아 IT전사를 키운다





김태경 웹케시 캄보디아 소프트웨어 HRD 센터장

"결혼은 꿈도 못 꾼다던 학생들이 취업한 뒤 결혼하는 모습 보니 보람"

캄보디아는 1970년대 후반 킬링필드 대학살, 1980년대 이어진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높다. 이곳 청년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등 IT기술에 관심이 많다. 프놈펜 고교생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통계도 캄보디아 IT 시장의 미래에 기대감을 북돋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수요에 반해 IT 기술 교육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의 핀테크(IT금융사업) 기업인 웹케시가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통해 2013년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소프트웨어 인적자원개발(HRD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김태경 센터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공유가치창출(CSV) 관련 재원을 KOICA의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개도국의 경제 ·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개도국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

Q_웹케시의 '캄보디아 프놈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 2013년, 웹케시(Webcash)는 캄보디아 ICT 역량강화를 위해 프놈펜 소프트웨어 HRD센터(이하 HRD센터)를 세웠다. 캄보디아 IT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80명을 선발하며, 현재 5기 과정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졸업생 212명을 배출했고, 그중 95% 이상은 IT 계열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우수 졸업생에게는 한국 IT 기업에서 1~2년간 기술연수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캄보디아 당국은 HRD센터의 졸업생을 활용해 ICT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나아가 자체 프로젝트도 기획하게 됐다."

Q_HRD센터만의 특화된 교육 방식이나 강점이 있다면?

"HRD센터의 커리큘럼은 9개월 과정으로, ICT 기초 수업(5개월)과 취업 집중 교육(4개월) 순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이 무료이며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이외 HRD센터 교육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세미나 중심'이다. 수업이 발표 및 질의응답 위주로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핵심 내용을 체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프로젝트 중심'이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프로젝트 과제를 활용한다.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며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산업 현장 중심'이다. HRD센터는 현지 기업을 수시 방문해 주요 사용 기술 및 프로젝트 주제를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 기수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 최신화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VR 등과 연관된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 흐름에 대비할 수 있다."

Q_그렇다면 HRD센터 졸업생들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

"현재 약 20여개 현지 기업에서 HRD센터 졸업생을 채용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헤드헌팅을 하고 있다. 실제로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100% 취업한다. 대부분이 캄보디아 현지 IT 기업, 금융권, 정부기관에서 근무한다. 취업 후 초봉은 300~500달러 수준으로 동일 분야 평균 급여의 150~200%에 달한다. 특히, 현재 캄보디아 국세청과 KOICA의 '온라인 세금 수납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핵심 인력 대부분이 HRD센터 출신이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총 48명이 한국 IT 기업에서 B2B 핀테크 기술, 모바일 솔루션 개발 등 기술연수를 받았다. 이 중에서 16명이 한국 각 대학에서 IT 분야 석 ·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HRD센터에 처음 들어올 때는 집이 가난해서 결혼은 꿈도 못 꾼다던 학생들이, 취업한 뒤 결혼하고 자녀도 낳아 기르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나아가 이들이 캄보디아 IT 분야의 지도자가 되어 가져올 변화를 상상할 때 가장 행복하다."

Q_KOICA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KOICA의 브랜드 가치는 현지인에게 신뢰감을 준다. 특히 처음으로 학생 모집 홍보를 하기 위해 현지 대학, 기업, 정부기관을 찾았을 때 KOICA 덕을 톡톡히 보았다. 또한 IBS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IT 인재를 키워 국가 차원의 ICT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웹케시는 글로벌 SW 인재양성을 위해 비영리재단을 설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타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있을 때 KOICA와 협력을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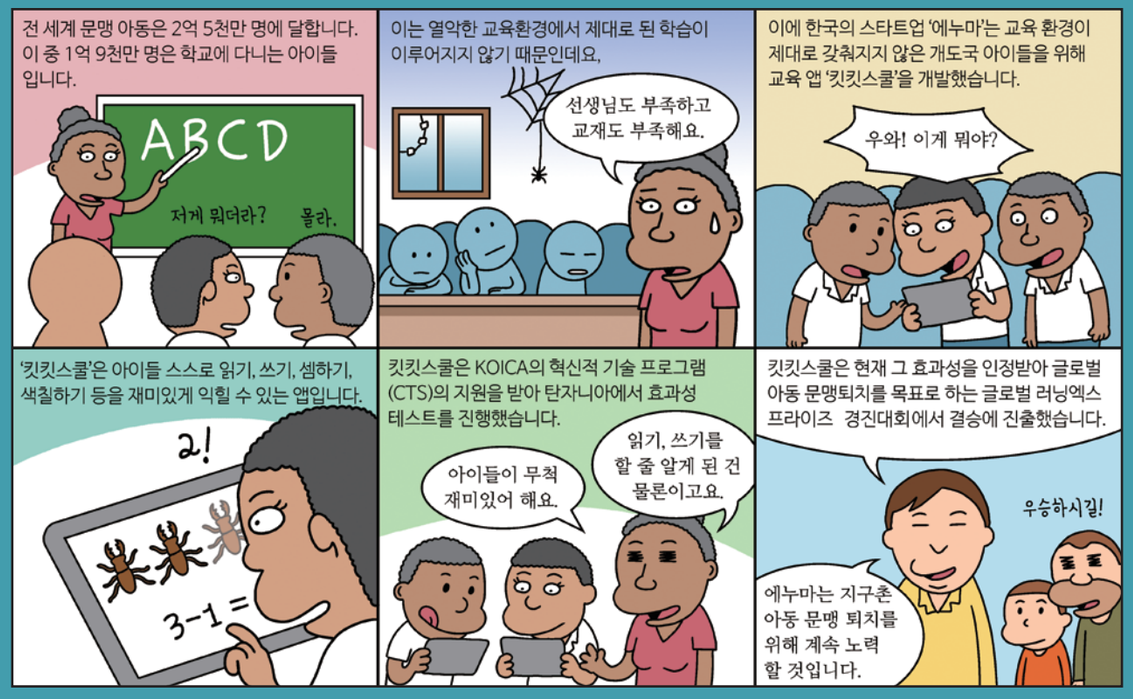
01


02

01
캄보디아 소프트웨어 HRD 센터 수료식.
02
캄보디아 소프트웨어 HRD 센터 입학 시험 현장.

글 한종수(KOICA 홍보실 인턴기자) · 사진 웹케시
카툰 홍세훈 작가

||| 교육 스타트업 '에누마'의 개도국 아동교육 앱 '킷킷스쿨' 탄자니아 아이들 앱으로 공부한다?





전유택 에누마 한국 사무소 소장

"부모님이 학교에 가지 말라 해도 꼭 등교한다는 이야기 들어 뿌듯"

UNESCO에 따르면 전 세계의 문맹아동은 2억 5000만명에 달한다. 교육 스타트업 에누마(enuma)는 그중 1억 9000만명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탓에 제대로 된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에누마는 이들을 위해 교육 앱 '킷킷스쿨(kitkit school)'을 개발했다. 그 과정에서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CT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며, 탄자니아 현지에서 '킷킷스쿨'의 효과를 검증받았다. 전유택 에누마 한국사무소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 혁신적기술프로그램(CTS ·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KOICA가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휴대용 말라리아 진단키트 △모바일 초음파 진단기 △식용유를 활용한 랜턴 등이 대표 사업.


01



02



03

Q_에누마와 '킷킷스쿨'에 대해 소개해 달라.

"에누마는 전 세계 아동들이 장애, 가난 등 어떤 제약에도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왔다. 장애가 있더라도 스스로 수학 학습을 할 수 있게 돕는 앱 '토도수학(todo math)'이 대표 제품이다. 최근에는 전 세계 아동 문맹 퇴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Global Learning Xprize)*에 '킷킷스쿨'로 결승에 진출했다. '킷킷스쿨'은 개발도상국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개발한 기초교육 앱이다.

*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대회(Global Learning Xprize): 세계 최대 비영리 벤처 재단인 엑스프라이즈 재단이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주최하는 경진대회로, 교사와 학교가 부족한 지역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한다.

Q_킷킷스쿨 개발 과정에서 초점을 맞춰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개발도상국 아이들은 대개 영유아 단계에서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교에 입학한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능력 편차가 매우 크고 가정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지속적으로 학습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아이들을 위한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 보편적 학습 설계)*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 '킷킷스쿨'은 선긋기, 세어보기, 숫자익히기 같은 기초적인 아동발달 단계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교사가 부족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교육할 수 없는 학교나 학교 밖 아이들도 '킷킷스쿨'을 통해 원활히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01 킷킷스쿨로 공부하고있는 탄자니아 아이들.
02 자신들이 한 게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살라살라초등학교 학생들.
03 '킷킷스쿨' 교사워크샵에 참여한 용보초등학교 교사들.

* 보편적 학습 설계: 장애 유무나 연령 등과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들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론.

Q_킷킷스쿨이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디지털 기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고 싶다. 하나의 태블릿PC를 통해 수많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다른 나라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퍼즐맞추기, 노래부르기, 색칠공부와 같이 아동발달을 촉진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활동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런 것을 모두 '킷킷스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 넣어 개발도상국 아이들도 풍부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다. 이런 지적 · 미적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단순한 학력증진뿐 아니라 폭넓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Q_탄자니아에서 킷킷스쿨을 직접 사용해본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은 모두 '킷킷스쿨'을 통한 학습을 즐거워했고 효과도 좋았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날씨가 좋지 않거나 가사활동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학교에 꼭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아이가 심부름을 할 때 그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킷킷스쿨'을 통해 학습을 한 이후로는 심부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Q_에누마가 앞으로 개발도상국 교육환경에 어떻게 기여하기를 바라는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교육은 제한된 교육 재정, 교사양성과 보급 시스템의 미비 등 여러 제약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에서 단기간에 좋은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분야다. 좋은 제품을 통해 그 경제성과 효과성을 증명한다면 많은 곳에서 학습이 디지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기가 도래하리라 믿는다. 에누마의 제품들이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의 추가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가 없는 곳에 양질의 교육을 전달한다거나 기존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글 황서현(KOICA 홍보실 인턴기자) · 사진 에누마
카툰 홍세훈 작가

||| 한국 청년 스타트업 '엔젤스윙'의 드론 데이터 플랫폼

네팔 청년에게 '꿈의 지도' 선물하다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

"KOICA의 다양한 지원 덕분에 네팔 청년 창업에 도움 줘 기뻐"

지도는 길을 알려줄 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구조하거나 건물을 짓기 전 땅의 넓이를 측량하는 데도 사용된다. 위성을 보유하지 못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항공사진 지도를 사용하지만 그마저도 자주 갱신하지 못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한국의 청년 스타트업 엔젤스윙(angelswing)은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으로 개도국의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웹서비스를 시작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CTS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현지 청년들의 창업과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지도 제작이 어떻게 네팔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걸까? 박원녕 엔젤스윙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혁신적기술프로그램(CTS ·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KOICA가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휴대용 말라리아 진단키트 ▲모바일 초음파 진단기 ▲식용유를 활용한 랜턴 등이 대표 사업.

Q_엔젤스윙의 '개도국 도시화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데이터 플랫폼 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드론으로 촬영한 특정 지역의 사진을 2차원 또는 3차원의 공간 정보로 구축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항공지도보다 더 선명할 뿐 아니라 측량 정보를 얻거나 지역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비교할 수도 있다. 사업의 특징 중 하나가 현지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엔젤스윙이 드론을 구매해 네팔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제공하면, 그들은 드론으로 지역의 상공 사진을 촬영한다. 드론이 지역을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며 몇 초에 한 번씩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를 드론 맵핑(mapping)이라고 한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엔젤스윙의 웹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처리되어 정밀지도(2D 정사 사진), 3D 모델 등을 얻을 수 있다. 청년 창업가들은 제작된 지도나 영상을 필요로 하는 건설사 등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드론과 지도 제작 웹서비스를 이용해 현장조사부터 분석까지 저비용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Q_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지리정보 등 국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책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이번 사업의 경우 현지 창업가 혹은 사업가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는 플랫폼 내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책 관련 부분은 항상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

Q_네팔 현지 출장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떤가.

"현지 청년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드로네팔(Dronepal)이라는 현지 청년 스타트업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앞으로 현지 파트너 기업의 주요 고객이 될 수력발전소 건설 관계자도 만났다. 그들은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 실제 측량 자료로 쓰이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했다. 드론으로 토지를 측량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드론을 이용해 토지 촬영부터 분석까지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기존에 항공기로 측량할 때 100㏊(1만㎡ · 3025평)당 15~20일이 걸렸다면 드론을 이용하면 하루면 가능), 현지의 많은 건설업자로부터 측량 의뢰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Q_KOICA CTS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네팔 지진 당시 카트만두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마침 KOICA 개도국 대학 역량 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곳에서 KOICA의 CTS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기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개도국에 혁신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이 엔젤스윙의 비전과 일치했기에 지원하게 됐다. 사실 2015년에 드론 보급으로 CTS에 도전했을 때는 탈락했다. 이후 지도를 제작하는 웹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지 인력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구상해 지원했고, CTS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


01



02


03

01
2015년 네팔 구호현장에서 드론 운행하는 모습.
02
네팔 현지 학생들과 함께.
03
네팔 현지 청년기업 드로네팔과 MOU 체결 당시.

Q_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네팔의 청년 사업가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과거 네팔 지진 당시 만났던 학생들도 있다. 그들을 볼 때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하다."

Q_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업을 펼치고 싶다. 지도 제작을 통해 여러 개도국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청년 창업가들도 많이 만나 기술을 전수하고 싶다."

글 원지은(KOICA 홍보실 인턴기자) · 사진 엔젤스윙
카툰 홍세훈 작가